

# 성 니콜라오 (축일 12월 6일)

조한수

디 다 케 디다케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디다케 인물 에스프레소에서는 12월이면 모든 이들이 기다리는 성인을 모셨습니다. 특히 온 세상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분, 바로 니콜라오 성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니콜라오 성인님!

니콜라오 안녕하세요, 기자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안녕하시지요? 12월에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요.

디 다 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영광이지요! 12월이 되면 다들 니콜라오 성인님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니콜라오 저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메고 오는 선물 보따리를 기다리시는 건가요?

디 다 케 (웃음) 아니, 뭐.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빨간 옷에 흰 수염을 기르신 니콜라오 성인님을 뵈지 못하면 성탄절 분위기가 살지 않으니까요.

니콜라오 마치 눈이 없는 성탄절과 같이 쓸쓸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디 다 케 예, 맞아요. 바로 그 기분이예요.

니콜라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사람이 되셨다는 것, 바로 구세주 아기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디 다 케 당연히 그렇지요.

니콜라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들도 성탄절하면 제일 먼저 흰 눈, 산타클로스,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등등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주변의 것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성탄절이 아닌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디 다 케 그래도 맛있는 크리스마스보다는 흰 눈이 펄펄 내리는 크리스마스가 더…….

니콜라오 어허! 그래도!

디 다 케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니콜라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세상살이에 낭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분위기 있고 좋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위기와 낭만이 아니라 본질에 담겨 있는 의미지요. 너무 분위기나 낭만, 또 겉치레에 신경을 쓰다 보면 본질을 외면하고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요. 아, 미안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교훈적으로 흘러가네요. 사실 저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인데…….

디 다 케 아닙니다, 니콜라오 성인님. 정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인걸요. 그런데 성인님께서 어떻게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해 주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셨나요?

니콜라오 아! 그건 말이죠, 제 축일인 12월 6일에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는 풍습이 유럽 전역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독일 지방의 풍습이 제 축일과 결합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제 모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디 다 케 독일 지방의 풍습이요?

니콜라오 예, 그렇습니다. 독일 지방에는 ‘토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겨울에 염소가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나누어 준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전설과 제가 결합되어 성탄절 때에 사슴이 끄는 마차를 타고 세상 곳곳을 누비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 된 것이지요.

디 다 케 아하! 그렇게 된 것이군요.

니콜라오 그리고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저를 ‘신터 클레스’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이 미국으로 건너가 ‘산타클로스’가 된 것이고요.

디 다 케 아,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가 되셨군요! 산타클로스의 유래이신 니콜라오 성인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었다고 들었어요.

니콜라오 예, 당시 저는 소아시아의 파타라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많은 재산을 남겨 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자선사업을 실천했지요.

디 다 케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셨군요.

니콜라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저의 자선 활동 중에는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디 다 케 그게 무슨 사연인가요?

니콜라오 제가 우리 교장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삶에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찾아 보고 또 돕기도 했었는데, 정말 어렵게 사는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 열심히 성당에 다니고 신앙심도 정말 깊은 세 딸을 데리고 사는 분이셨는데, 문제는 너무나 가난해서 딸을 시집 보낼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했지요. 지참금이 없으면 좋은 배필을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디 다 케 그래서요?

니콜라오 거기다가 그분에게 빛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빗쟁이들이 빛을 갚지 못하면 딸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디 다 케 사채업자였나 보지요?

니콜라오 요즘으로 치면 그런 셈이지요.

디 다 케 그래서요?

니콜라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딸들을 시집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밤에 몰래 그 집에 가서 지참금이 든 자루를 창문으로 던져 주고 나왔어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디 다 케 그럼 딸들이 사채업자에게 팔려 가지 않고 그 돈으로 시집을 갈 수 있었겠군요.

니콜라오 예수님 가르침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누군지 알기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지켰던 세 딸의 아버지를 통해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디 다 케 그 사건 후에는 사제가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니콜라오 예, 맞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제 삶에 대해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사제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즉시 사제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디 다 케 사제가 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미라의 대주교가 되셨다고 하던데요?

니콜라오 기자분이 아시는 것이 정말 많네요. 저에 대해 조사를 많이 하셨나 봐요.

디 다 케 워낙 유명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니콜라오 성인님에 대한 일을 잘 알고 있어요.

니콜라오 아, 그렇군요.

디 다 케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주교님이 되셨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니콜라오 예, 그러지요. 그러니까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1년 조금 지났을 때 저희 교구, 그러니까 미라 교구의 대주교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후임 교구장을 선출하기 위해 교구의 사제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신임이 있고 교구를 잘 이끌어 갈 만한 사제를 수소문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교구 신부님들과 다른 주교님들이 모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디 다 케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요?

니콜라오 예.

디 다 케 무슨 소리였는데요?

니콜라오 하늘에서 “내일 아침 성당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니콜라오라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눈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디 다 케 그래서요?

니콜라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마침 미라에 머물러 있던 저는 아침 일찍 기도하려고 성당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많은 신부님들과 또 주교님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반겨 주시는 거예요.

디 다 케 깜짝 놀라셨겠군요?

니콜라오 그럼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미라의 주교직에 추대하셔서 그 후로 그곳, 그러니까 미라에서 주교로 사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 다 케 미라의 주교님으로 계시면서 무고한 사형수들도 구하셨다고 하던데요?

니콜라오 그러니까 그게 에우스타시우스라는 사람이 지방관으로 있을 때지요, 아마. 그 사형수들은 우리 지방의 관리들이었어요. 저는 사형수 가족들로부터 그들이 무고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사형수들을 만났더니 가족들의 주장처럼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관한테 그 사람들의 사형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더라고요.

디 다 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니콜라오 지방관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황제의 칙사가 달려와서 사형을 중지시키고, 그 죄수들을 풀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디 다 케 황제의 칙사가요?



▲성 니콜라오

니콜라오 예, 그렇습니다. 당시 황제셨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께서 보내신 칙사였지요.

디 다 케 아니 황제께서 어떻게 그 사형수들의 무고를 아시고 칙사를 보내 사형을 중지시켰나요?

니콜라오 저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답니다. 그런데 그 칙사가 저를 보고 어젯밤 황제께서 꿈을 꾸셨는데, 제가 황제 꿈에 나타나 그 죄인들이 죄도 없이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즉시 사람을 보내 사형 집행을 멈추게 하라고 했답니다.

디 다 케 황제의 꿈에 니콜라오 성인께서 나타나셔서요?

니콜라오 예.

디 다 케 제가 듣기로는 이와 같이 누명을 쓴 사형수를 구하고, 가난한 세 딸을 위해 지참금을 마련해 주신 것 외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니콜라오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지요.

디 다 케 그런 중에 기적이 일어난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니콜라오 예,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해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굶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요. 지방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구하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식량을 가득 실은 여러 척의 배가 폭풍우에 밀려 미라의 해안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각 선장에게 달려가 식량을 좀 달라고 간청하였지요.

디 다 케 그 배에서 순순히 식량을 주던가요?

니콜라오 제가 그랬지요. ‘배에 짐이 너무 많이 실려서 이렇게 해안으로 밀려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 배에서 식량을 좀 덜어 내리면 다시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내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배가 물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선장은 그때까지 왜 배가 이곳까지 밀려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디 다 케 정말 짐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니콜라오 제가 배 전문가도 아니고 자세히 보지도 못했으니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순간 제게 떠오른 영감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마도 성령께서 제가 그렇게 말하도록 안내하셨는지도 모르지요.

디 다 케 그래서 식량을 덜어 주었군요.

니콜라오 예. 각 배에서 얼마만큼의 식량을 덜어 내리자 배가 곧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배들은 목적지를 향해 계속 항해할 수 있었지요. 그 식량으로 충분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어요.

디 다 케 그런데 기적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니콜라오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그 배가 항해를 하다가 창고에 가 보니 우리를 위해 덜어 냈음에

도 불구하고 식량들이 전혀 줄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디 다 케 전혀 줄지 않았다고요?

니콜라오 예, 그랬답니다.

디 다 케 하느님께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 주신 것이군요.

니콜라오 그렇지요.

디 다 케 니콜라오 성인님께서 그런 연유로 뱃사람들의 주보성인이 되셨나요?

니콜라오 그 일도 약간은 영향이 있었겠지만, 뱃사람들이 저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증언이 여럿 있었지요. 어떤 뱃사람이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겨우 판자에 의지한 채 바다를 떠다닐 때 제가 쪽배를 타고 나타나서 구해 주었다고 증언한 일도 있고요, 또 어떤 뱃사람은 풍랑으로 배가 부서져서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었는데 제가 꿈에 나타나 길을 인도해 주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증언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의 수호성인이 되었지요.

디 다 케 실제로 그렇게 뱃사람들을 구해 주셨나요?

니콜라오 제가 폭풍이 심하게 불거나 파도가 아주 높은 날이면 바닷가에 가서 항해하는 모든 선박과 뱃사람들이 무사히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 특별히 기도를 드리곤 했는데 아마 그런 연유에서 그런 기적이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디 다 케 뱃사람들의 주보성인 외에도 죄수와 어린이들의 수호성인이기도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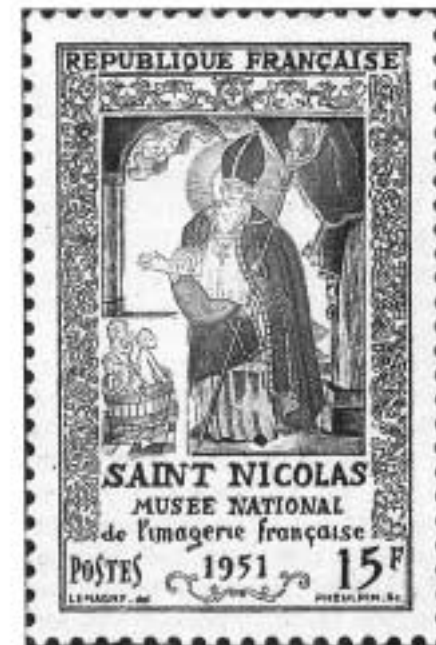
니콜라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이들의 수호성인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죄수의 수호성인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의 사형수를 구해 주어 그렇게 되었지요.

디 다 케 니콜라오 성인께서는 니케아 공의회에도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니콜라오 예, 아리우스파를 단죄했던 니케아 공의회에도 참석했지요. 우리 교회의 역사 중 아주 중요한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의에서 오늘날과 같은 삼위일체 신앙이 기본적인 틀을 잡게 되었지요. 아리우스파의 이단을 물리치고요.

디 다 케 신앙 문제로 감옥에 갇히신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니콜라오 당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관용론으로 그리스도교가 막 신앙의 자유를 얻은 때였지요. 하지만 아직까지 자유롭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영유할 수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있던 미라에서



▲1951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니콜라오 성인 기념 우표

도 여러 차례 박해가 있었고, 그때마다 저를 감옥에 가두고 배교하도록 강요하곤 했지요. 또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하지만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을 가슴에 담고 있었기에 박해도, 고문도, 모함도 저를 예수님께로부터 떼어 놓지 못했습니다.

디 다 케 성인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많은 기적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니콜라오 저는 341년에 세상을 떠나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제 몸에서 성유가 흘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유로 병을 치유했지요. 그리고 제가 땅에 묻힌 후에도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제 무덤에 와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고, 저 역시 사람들을 위해 하느님께 전구를 드려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봅니다.

디 다 케 니콜라오 성인님의 유해가 후에 이탈리아로 옮겨졌지요?

니콜라오 예,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의 미라,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이탈리아 바리라는 곳으로 옮겨져 그곳에 아주 큰 ‘성 니콜라오 성당’이 세워졌지요.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의 바람이 성취되는 기적도 생기기도 했지요.

디 다 케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니콜라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꼭 한번 들러 주세요.

디 다 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디다케 독자들에게 정리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니콜라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서 몸소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중심은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너무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디 다 케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니콜라오 성인님.

니콜라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

※니콜라오 성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보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더 많습니다. 이 내용은 니콜라오 성인의 여러 전설과 기록을 참고, 재구성한 것입니다.